Sharing QT
20.08.09 주일

[로마서 8:18-25]

인내가 필요해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83장 (빈 들에 마른 풀같이)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18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9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21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22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23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4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
겠습니까?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성도는 지금 겪는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18절).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피조물은 이 땅에서 탄식하고 고통을 겪으며 구속될 날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소망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1. 피조물은 지금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22절),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요? (21절)

  2.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23절)

- **닮아가기**

  신앙생활이란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생활에 대해 어떤 다짐을 하게 되었나요?

-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SENA 월요일

20.08.10

[로마서 8:26-30]

괜찮아 성령이 함께 하셔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성령님

26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27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28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29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0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3 묵상하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는 죄와 싸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상의 대세를 거슬러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6절). 나는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하나 되기만 하면 됩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27절). 그분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28절),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29절).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붙드세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4 적용하기

혹시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져 외롭고 두려울 때가 있나요? 나의 도움을 밖에서만 찾지 마세요. 나의 진짜 도움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혼자 해결하려 끙끙 앓지 말고 성령님께 나의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까지 모두 내려놓으세요. 당장은 모든 것이 문제로만 보여도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① 세상은 바보 같다고 말해도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정답임을 믿나요? 오늘 그 믿음으로 담대히 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②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6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② 늘 저와 동행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SENA 화요일

20.08.11

[로마서 8:31-39]

네버앤딩 그 사랑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대적이 없는 삶

31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 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4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36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3 묵상하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우리를 포기하실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칼의 위협 같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포기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변하지도 끊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35절).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나요?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실 것입니다(37절).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못하실 상황은 없습니다. 그분이 돕지 못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4 적용하기

때때로 잦은 실수나 잘못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갈까 봐 전전긍긍했던 적은 없나요? 조금만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고 흔들리는 것은 언제나 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혼자 등돌려서 슬퍼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묵상해보세요. 그 사랑에 촉촉이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상의 유혹들은 무엇인가요?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②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도전할 일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②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맛보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SENA 수요일

20.08.12

[로마서 9:1-13]

너의 구원을 위해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근심

1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2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3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4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
니다.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
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7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
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0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11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12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
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13 기록되기를 "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3 묵상하기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특권을 누렸습니다(4절). 그러나 그들은 선택받았다는 자부심만 있을 뿐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된 소식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먼저 선택받고도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외되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랐던 바울의 간절함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나의 구원을 넘어 가족, 친구, 주위의 수많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4 적용하기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는 데 급급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신앙에는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요? 나의 가족, 친구들, 주위 사람들을 비롯해 구원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간절함이 내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과 같은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① 나도 내 주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울과 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그들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②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 사회, 우리 민족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나요? 비판만 할 뿐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6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② 제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 제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SENA 목요일

20.08.13

[로마서 9:14-24]

따질 수 없어요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하나님의 주권

14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7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18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 토기장이 비유

19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라고 할 것입니다. 20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22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24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에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도 부르셨습니다.

3 묵상하기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실 권한도,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구원의 촛대를 이방인에게 넘기실 권한도 모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왜 나를 먼저 부르지 않았냐'거나 '왜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냐'며 따질 수 없습니다.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면,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관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22절).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관용하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겸손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삶, 서로 다른 모습, 각자에게 고유한 삶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 주어진 처지와 환경을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허락하신 자리가 어떠하든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토기장이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① 나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만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②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나 누리는 것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나요?

6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②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SENA 금요일

20.08.14

[로마서 9:25-33]

행위 말고 믿음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구원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

25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26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27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28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9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

30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31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32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33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3 묵상하기

바울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해 구원은 혈통과 상관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도 못했고 율법도 몰랐지만, 먼저 복음을 들은 유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30절). 반면 유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31-32절). 나 역시 이방 사람이지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은혜를 잊고 나 또한 유대 사람들처럼 구원받기 위해 여러 행위들로 노력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했던 수많은 노력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를 이제 그쳐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성취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4 적용하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억지로 절제하고 신앙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에 얽매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은 구원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가려고 봉사하고 십일조를 내고 참고 인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요?
②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을 몰랐던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며 무엇을 깨달았나요?

6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② 구원은 제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Self QT
20.08.15(토)

[로마서 10:1-13]

모두에게 열린 길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이스라엘의 죄**

1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
을 받는 것입니다. 2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
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3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
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4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5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
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6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
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7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8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네 가까이 있으니 네 입 속에 있고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 **구원을 받으려면**

9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11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합니다. 12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
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13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